

광주·전남 9명 확진... '2차 대유행' 우려

4개월만에 지역내 최다 감염...수도권발 '호남권 전염' 현실화

최초 확진 감염원 오리무중...시장 등 다중시설 이용 불안 확산

광주·전남에서 지난 주말과 휴일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해의 유입 2명 포함)이나 발생해 방역당국이 초비상이다. 그동안 우려했던 수도권발 '호남권 전염'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6면>

광주·전남은 지난 2월 3일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 사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2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번 지역사회 감염자들이 대학병원·목욕시설·학교·시장·병원·종교시설·학원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돌아다니고, 친구 생일파티에 참가하는 등 수많은 사람과 밀접접촉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지역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광주와 목포에 사는 60대 자매 부부와 10대 손자, 지인 등 7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28일엔 니카라과와 영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한 40대와 30대 여성이 각각 전남 24번째, 광주 38번째 확진자가 됐다. 이번 주말과 휴일사이에만 광주에서 5명, 전남에서 4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번 지역사회 감염 첫 확진자는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광주 34번 확진자)다.

A씨는 지난 24일부터 발열, 기침, 가래, 오한 등의 증상을 보였고, 26일 오후 5시께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 후 다음날인 2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 남편인 60대 B씨(광주 35번)도 이날 함께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A씨가 지난 23일 방문한 동구 소재 광복사 60대 스님(광주 36번)C씨도 27일 오후 늦게 양성 판정을 받고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A씨의 지인으로 지난 24일 담양 한방병원을 함께 방문했던 D씨도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접촉자 중 목포에 거주하는 언니 E씨와 언니 남편 F씨, 그리고 10대 손자 G군도 27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이들은 전남 21, 22, 23번째 환자로 분류됐다. A씨의 언니 E씨와 남편 F씨는 지난 23일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A씨 집을 방문해 점심을 함께 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한 결과, 일부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다

중시설을 찾아가 하면, 선별진료소 방문 이후에도 일부 다중시설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느슨해진 개인 방역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추가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시스템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초기 감염원조차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선 초기 감염원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확진자 중 최근 해외체류 이력이나 타지역 방문 이력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일단 확진자 동선 내 폐쇄회로 영상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GPS 위치추적 내역 등을 통해 추가 동선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동선이 겹치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 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확진자의 동선이 거주지인 광주와 목포를 비롯한 직장이 있는 나주, 그리고 회순 등으로 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하고 있다"면서 "외출시 실내외 구분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씻기와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협조가 코로나19 방역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고 호소했다.

광주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이번 지역사회 감염자와 접촉한 37명 중 18명이 음성이며, 19명은 검사중이다. 전남은 접촉자 94명 중 22명이 음성이며, 72명은 검사중이다. 또 전남 23번 확진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 전교생과 교사 등 561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코로나 19 목포 확진자의 행적 중 지난 23일 양동시장을 방문했다고 밝혀진 가운데 27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1천만명 넘어서 누적사망자 49만9193명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6개월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28일 오전 6시 12분(그리니치 표준시 27일 오후 9시 12분) 현재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01만3690명이다. 누

적 사망자는 49만9193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중국이 작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179일 만이다.

국가별 확진자 수는 미국(258만7479명), 브라질(128만4214명), 러시아(62만7646명), 인도(52만9577명), 영국(31만250명) 순으로 많았다. 이어 스페인(29만5549명), 페루(27만2364명) 순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알립니다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한 달에 한권 함께 읽기

매월 1일 함께 읽을 책 발표
기고문 게재·'북토크' 중계

광주일보사는 철학자 최진석(사단법인 새말새뜻 이사장·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과 함께하는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관련기사 16면>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광주일보와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묻는 출발점으로, '책 읽기'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삶을 위한 지식과 내공을 키우는 일입니다.

공하는 문학, 과학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선정해 함께 읽기를 권할 것입니다. 광주일보는 매월 첫째날 1권을 통해 함께 읽을 책을 발표하고 월말에 최고수와 '책 읽는 개그맨'으로 유명한 고명환의 '북토크'를 지상 중계합니다. 또 다음달 첫째주에는 전 달에 발표했던 책에 대한 최 교수의 기고문을 지역 작가들의 그림과 함께 게재합니다. 이번 책 읽기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책 읽기 프로젝트 관련 영상과 기사는 광주일보와 '새말새뜻' 홈페이지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첫번째 함께 읽을 책은 오는 7월 1일 최 교수는 매달 인간의 근본 정신을 자극하고, 세계를 읽는 다양한 눈을 제

光州日報社

담양 대나무밭 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대나무 품목으로 세계 최초

담양 대나무밭 농업이 대나무 품목으로 세계 최초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

담양군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담양 대나무밭 농업의 자연친화적 토지 이용, 전통 농업기술, 아름다운 농업문화 경관, 축산물 등 문화·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했다고 28일 밝혔다.

담양 대나무밭은 354개 마을 대다수에 조성돼 있어 죽재, 죽순, 차나무, 버섯 등 1차적인 부산물을 제공하고 대나무밭 주변에 형성된 수자원은 예로부터 농사에 활용돼왔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세계 각지의 전통적 농업활동과 경관, 생물다양성, 토지 이용 체계를 선정해 보존하고 차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주관으로 창설

한 제도로 현재까지 아프리카, 남미 등 21개국에서 57곳이 등재됐다. 국내에선 청산도 구들장 논농업, 제주 밭담, 하동 전통 차농업, 금산 전통 인삼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대나무 품목으로 세계 최초로 등재됨으로써 담양 대나무의 브랜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담양 대나무의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후대에 그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광주의 미래 지도를 바꿀 **6대 핵심사업** 3조 7599억원

기업의 상실, 광주의 산업단지가 확 바뀝니다

- 1 호남권 17년 만에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1조 2433억 투자
- 2 노후산단을 새롭게, 신규산단을 첨단으로 만드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 7656억 투자

광주의 미래 먹거리산업이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 3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5754억 투자
- 4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광주 AI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4116억 투자
- 5 빛그린산단, 평동산단 일대에 '청정 공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7640억 투자
- 6 남구 에너지산단 중심 '국내 최초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 7200억 생산유발효과

광주광역시

※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참조 www.gwangju.go.kr